

新年辭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첫날에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해를 보내고,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의 첫날을 맞아 종친회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종친회가 결성된지도 1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종친회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에 종친 여러분들 모두가 정성을 모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深甚)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중앙종친회에서는 가락동에 소재하는 한화빌딩에 종친회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해마다 종친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하계교양강좌를 개최하였으며, 그밖에 크고 작은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대동보(大同譜) 발간을 위한 고유제(告由祭)까지 지내고, 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차례 걸쳐 종파간 많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통합대동보(統合大同譜) 제작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통합대동보는 최첨단 정보기술을 동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족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하에 본인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해 경년년(庚辰年)에는 이 작업을 완성하여 종친 여러분 앞에 새 족보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앙종친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자랑스런 인물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절재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과 쌍벽을 이루는 국민적 영웅이십니다.

그 동안 진실 탐구를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어른의 한이 다소 신원(伸冤)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위대한 업적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올바른 재평가가 이루어져 그분의 위상이 재조명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순천김씨 후손들의 사명이라 하겠습니까.

한국의 문화인물로 추대되고 각종 기념 사업이 펼쳐지고 상징조형물들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종친회에서는 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든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종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새해에도 종친회가 추진하는 일들을 위하여 계속 동참하시고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가름합니다.

순천김씨중앙종친회 회장 김종식

中央宗親會 第十次 定期總會 開催

10月 31日, 한화빌딩 대강당에서



지난 10월 31일 11시, 한화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중앙종친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총회는 승연(承淵) 청년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종식(鍾植)회장과 각지의 원로 문장(門長)들께서 단상에 정좌(正座)한 뒤 개회선언과 국민연례가 있었고 곧이어 우영(佑永)종친에게 감사패(感謝牌)를 수여하였다. 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새로이 구성된 간사진을 소개하였으며 대전(大田)에서 참석한 수영(潁永)고문께서 종친간의 유대강화와 종친회의 역할에 관하여 역설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전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회기(會期)(1998. 4. 1. ~ 1999. 9. 30.)관계로 1년 반에 걸친 종친회의 업무집행 상황을 신임 오연(五淵) 간사장께서 보고하고,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이어 경남(景南)감사가 감사결과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철영(哲永) 총무간사는 제11기 예

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종친회가 전회기에 차용한 차입금 변제계획을 설명한 후 그 변제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이어서 내년도 종친회가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업목표로 종보(宗報)의 발간일정을 엄수하여 4~6회/년까지 확대발간하고 광고란을 유료화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종친들의 회비를 중심으로하여 종친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종친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동영(東瑛), 광희(光熙), 윤희(允喜)종친께서 제기한 종친회의 세부운영방안에 관하여 상호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신임 집행부가 새로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밝혔다.

13시 40분경, 폐회선언으로 제10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은행나무" 집에서 한화의 승연(昇淵)회장이 제공한 점심식사와 주류를 들면서 적조하였던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즐거이 담소를 나누었다.

개정(改正)된 회칙(會則)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會則原文	改正(案)
第七條 (任員) 3. 副會長 10명	3. 副會長 15명 내외
第八條 (任員의 選出) 1. 서울特別市 및 廣域市の 地域宗親會長을 당연직 副會長으로 할 수 있다. 3. 地域支會長은 理事中에서 支會에서 選出하고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4. 地域支會의 範圍는 會員의 居住分布狀況 및 地域의 範圍를 參酌 1個區, 市, 郡을 統合한 地域으로 會長이 指定한다.	削除 3. 地域支會長은 理事中에서 支會에서 選出하고 會長이 이를 追認한다. 削除
第十三條 (總會의 種類 및 召集) 2. 4月	2. 10月
第二十三條 (會計年度)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末日까지로 한다.	每年 10月 1日부터 翌年 9月 末日까지로 한다.

月潭祠 告由祭 및 重陽節 茶禮祭 奉行

전국 각처에서 150여 종친이 대거참여

지난 10월 16일(음, 9월 8일) 19시, 월담사(月潭祠)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어사훈신회맹록권(御賜勳臣會盟錄券)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제309호)로 지정되었음을 양경공조(襄景公祖) 부조묘(不祧廟)에 고유(告由)하는 제례(祭禮)를 봉행하였다.

이 날의 고유제(告由祭)는 일반 제례절차(一般祭禮節次)에 따라서 충주(忠州) 지연(志淵)종친의 집례(執禮)로, 한철(漢哲)종손을 초헌관(初獻官), 성주(星州)의 형원(亨遠)종친을 아헌관(亞獻官), 월담사(月潭祠)의 현임(現任) 도유사(都有司)인 두희(斗熙)종친을 종헌관(終獻官)으로 분정(分定)하고 안동(安東)의 인희(仁熙)종친이 고유축(告由祝)을 봉독(奉讀)하였는데, 다소 한기(寒氣)를 느낄 정도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40여 원로 종친이 모두 경건한 마음과 청결한 몸가짐으로 시종 엄숙하게 참례(參禮)하였다.

다음날 10월 17일(음, 9월 9일) 11시에는 월담사(月潭祠)의 중앙절(重陽節) 다례(茶禮)를 올렸다. 다례제(茶禮祭)는 임실(任實) 춘희(春熙)종친의 집례(執禮)로 한철(漢哲)종손이 초헌관(初獻官), 보령(保寧)의 규남(圭南)종친이 아헌관(亞獻官), 멀리 금산(錦山)에서 참사(參祀)한 지평공(持平公)의 종손(宗孫) 동택(東澤)종친을 종헌관(終獻官)으로 분정(分定)하고 제례(祭禮)를 엄수(嚴修)하였다. 특히 대구(大邱)와 충남(忠南)지역의 종친(宗親)들이 대형버스를 전세(傳賃)하는 등 멀리 부산(釜山), 광주(光州), 대전(大田), 부여(扶餘), 보령(保寧), 충주(忠州) 그리고 성주(星州), 구미(龜尾), 안동(安東), 상주(尙州)등 전국의 각처에서 150여 종친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제례(祭禮)를 무사히 마치었으니, 모두 다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뿌듯한 감회(感懷)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회맹록권(會盟錄券)의 문화재 지정(文化財指定) 고유문(告由文)은 현존(現存) 국학(國學)의 태두(泰斗)로서 우리 김문(金門)의 자랑인 용전(龍田) 철희(喆熙)종친이 지었는바, 그 축문(祝文)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於惟府君 獻陵勳臣 位至左揆 將相之身 祈雨輒應 匪誠感旻
柔遠方化 匪信服人 以誠以信 內經內綸 功垂社稷 德被生民
賜名諡典 不必煩申 到今世紀 餘六百春 不禡大廟 在開喜隣
所藏錄券 拱壁之珍 定文化財 邦家所播 不億諸裔 感不益新
茲因重九 厥由敢陳 兼薦明禋 虞告謹告
尙饗



(아, 부조께서는 현릉시대 훈신 이시다. 작위는 좌의정까지 이르렀는데 장상을 모두 한 몸에 가지셨네. 기우관이 되었을 때는 빈번마다 비 내렸으니 지극한 정성, 하늘을 감동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으랴. 먼 변방 야적들에게 잘 타일러 귀화하게 하였으니 참다운 신의, 남들을 복중케 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궁적은 사직에 드리워지고 은덕은 생민에게 입혔었네 이런 정성 이런 신의로써 온갖 경륜 올바르게 마음껏 펴서 이름과 시호 하사 받은 은전은 번거로이 거듭 밝힐 필요가 없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벌써 육백년이 넘었네. 부군을 모신 부조묘는 문경 고을 이 마을에 계시는데 예로부터 소장한 공신록권은 보물처럼 여기는 진품일세. 소중한 문화재로 결정됨은 국가에서 309호로 뽑게 된 결과이니 수많은 우리 자손으로서 느껴지는 마음 더욱 새롭지 않은가..... 이 중구일 재향에 따라 그 사유를 감히 고하고 재전을 드립니다.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고하오니 밝게 흠향해 주시옵소서.)

月潭祠 守護事業會 發起

협소하고 頽落한 祠堂의 모습에 가슴아파

지난 중앙절(重陽節, 陰 9月 9日) 월담사 다례제(月潭祠 茶禮祭)를 마치고 참사(參祀)한 150여 종친들이 마을회관에서 자리를 함께 하였다. 비록 오늘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한 번이라도 양경공조(襄景公祖)의 부조묘(不祧廟)인 월담사(月潭祠)의 재향(祭享)에 참사하였던 후손이라면 누구라도, 경내가 매우 협소하고 퇴락(頽落)한 사당(祠堂)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월담사(月潭祠)에 보관되어 오던 현릉(獻陵)의 회맹록권(會盟錄券)이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지정, 등록됨을 계기로 하여 항구적이고 완벽한 보전을 위하여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겠다는 걱정이 이십전심으로 상통되어 월담사(月潭祠)의 중수(重修)내지 수호(守護)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경공조(襄景公祖)의 후손인 각파(各派)의 종회장(宗會長), 각지(各地)의 문장(門長) 및 원로(元老)들께서 협의하여(假稱) 월담사 수호위원회(月潭祠 守護委員會)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발기준비대회(發起準備大會)를 가지게 되었다.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 종무간사(宗務幹事)인 철영(哲永)종친의 사회로 회의는 진행되었는데 월담사(月潭祠) 도유사(都有司)로서 오랫동안 헌신(獻身)하였던 수영(潁永) 대회

장께서 부조묘(不祧廟)로서의 이곳 월담사(月潭祠)의 의의(意義)와 그 중요성(重要性)을 강조하고 오늘의 이 모임을 계기로 하여 우리 순친김문(順天金門)의 중흥조(中興祖)이신 양경공(襄景公) 일세(一世)의 빛나는 위업(偉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자손된 도리에 부끄럽지 않게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역설(力說)하였다.

뒤이어 현 도유사(都有司)인 두희(斗熙)종친의 경과보고(經過報告)가 있었다. 먼저 도유사(都有司)의 중책(重責)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하면서 회맹록권(會盟錄券)의 유래와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원본(原本)을 처음으로 공개(公開)하고 우리 김문(金門)의 가보(家寶)인 이 진품(珍品)을 자자손손(子子孫孫)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적극적으로 본사업회(本事業會)의 결성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50여 종친들이 즉석에서 발기서명(發起署名)을 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전국의 모든 양경공(襄景公) 후손들은 한반도 빠짐없이 이 취지(趣旨)에 찬동하고 동참(同參)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우선 사업추진의 편의상 금년 말까지 발기인 신립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한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수영(潁永) 전 도유사(都有司) 대전(大田) 042-522-7033
- 두희(斗熙) 도유사(都有司) 대구(大邱) 053-743-9596/011-825-9596
-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 서울 02-400-2501

始祖 墓祀 嚴修

襄景公 秋享祭



始祖 秋享祭



襄景公 秋享祭

지난 11월 8일(음, 10월 1일) 전남 승주군 주암면에 자리잡은 우리 金門의 시조(始祖) 평양군(平陽君)의 유택(幽宅)에서는 전국의 각처로부터 80여 종친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향제(秋享祭)를 엄숙히 올리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제례(祭禮)는 서울 동철(東哲)종친의 집례(執禮)로 초헌관(初獻官)에 종식(鍾植) 중앙종친회장, 아헌관

(亞獻官)에 해남(海南)의 상용(相容) 부회장, 종헌관(終獻官)에 고양(高陽)의 천재(天在)종친이 분정(分定)되었고, 보연(輔淵)종친이 독축(讀祝)하였다.

중앙종친회 회장과 오연(五淵)간사장이 참사하였으며, 묘사일(墓祀日) 전야에는 동원재(同源齋) 관리인과의 계약조건을 다시 협의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0일(음, 10월 3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갑자원(甲子原)의 양경공(襄景公) 유택(幽宅)에서도 전국의 60여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金門의 중흥조(中興祖)이신 할아버지의 일을 기리는 추향제(秋享祭)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경덕재(景德齋)의 전도유사인 우영(佑永)종친의 집례로 시작된 묘사(墓祀)는 초헌관(初獻官)에 한철(漢哲)종손, 아헌관(亞獻官)에 안성(安城)의 명재(明在)종친, 종헌

관(終獻官)에 철희(詰熙) 서울종친회장이 분정(分定)되었고, 임실(任實)의 춘희(春熙)종친이 축문(祝文)을 봉독(奉讀)하였으며, 중앙종친회 오연(五淵)간사장이 산신제(山神祭)의 헌관(獻官)을 분임(分任)하였다.

한편 제례(祭禮)의 전후를 통하여 많은 참사자(參祀者)들은 최근에 일고 있는 월담사(月潭祠)의 수호문제와 더불어 퇴락한 경덕재(景德齋)의 향후 문제점등 산적한 종사를 걱정스러워 하였다.

典書公 祭壇 秋享祭

11월 10일(음, 10월 3일) 이천(利川) 대월면(大月面) 군량리(郡梁里)에 있는 전서공(典書公) 휘(諱) 을재(乙財)이하 4세의 추원제단(追遠祭壇)에 다수의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추향제(秋享祭)가 거행되었다.

초헌관(初獻官)에 병호(炳昊)종손, 아헌관(亞獻官)에 환식(煥植)종친, 종헌관(終獻官)에 남수(南洙)종친, 독축(讀祝)은 병윤(炳潤)종친이 분정(分定)되어 제

례(祭禮)가 진행되었는데, 이곳 대월면 일대에는 典書公 후손들이 누세기(累世紀) 동안 집단(集團) 세거(世居)하고 있으며 典書公 이하 4세, 즉 문소전직공(文昭殿直公)諱 오(禎) 영주만호(寧州萬戶)諱 석손(碩孫) 그리고 판서공(判書公)諱 회(淮)의 묘소(墓所)가 실전(失傳)되어 그 후손들이 追遠祭壇을 설립하고 매년 음, 10월 3일에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다.

節齋公 秋享祭

또한 이 날은 충남 공주 장기면(長岐面) 울곡(栗谷, 밤골)의 절재공(節齋公) 묘소(墓所)에서도 80여 후손들이 모여 추향제(秋享祭)를 올리었다.

먼저 지평공(持平公) 휘(諱) 태영조(台泳祖)와 총제공(摠制公)諱 수조(陞祖)의 묘사(墓祀)를 마친 뒤, 장희(場熙)종친의 집례(執禮)로 초헌관(初獻官)에 길원(吉元)종손, 아헌관(亞獻官)에 이병(利炳)

종친, 종헌관(終獻官)에 형돈(亨敦)종친이 분정(分定)되고 상대(相大)종친이 독축(讀祝)을 하였다.

금년 제례(祭禮)에는 전라도 담양(潭陽)에 세거(世居)하는 절재공(節齋公)의 제3자 諱 승유조(承琉祖)의 많은 후손들이 대형 버스를 전세하여 참사(參祀)하는등 성황리에 祭禮를 마쳤는데 중앙종친회에서는 철영(哲永)종무간사가 參祀하였다.

※ 忠義列傳은 사정에 의하여 連載를 쉽니다.

監察公 諱 世益祖 墓碑 除幕式 舉行

가신지 400년이 지나서 行績을 記錄하다

성주(星州) 수륜면(修倫面) 후산지원(後山之原)은 감찰공(監察公) 휘(諱) 세익조(世益祖)의 유택(幽宅)이시다.

公은 양경공(襄景公)의 증손이며 횡성(橫成)현감 諱 사성(嗣成)의 장자(長子)로서 사헌부(司憲府) 監察을 역임하시었고, 그 후손들이 이곳 星州 땅에 세거하고 있는데, 횡성공과 종희(희장 榮熙)에서는 금년에 감찰공의 묘역정화사업을 전개하고 묘비수립(墓碑竝立)등 대대적인 치장을 끝마쳤다.

그리고 선조가 유명을 달리하신지 400여년만에 입석(立石)을 하고 지난 6월에는 전국에 산재한 후손 및 각파 종친들과 많은 유지(有志)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고유제(告由祭)를 올렸다.

監察公 諱 世益祖 碑石



節齋公 諱 宗瑞祖 墓所 參拜記

安東의 順金親睦會에서



절재공(節齋公) 휘(諱) 종서조(宗瑞祖)의 자(字)는 국경(國卿), 시호(諡號)는 충익(忠翼)이며 절재(節齋)는 호(號)이시다. 절재공(節齋公)께서는 도총제 휘 수(誨)의 둘째 아들로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 공주(公州) 의당면(儀堂面) 월곡리(月谷里)에서 출생하시고 1405년(太宗 5년)에 문과(文科)급제, 1433년(世宗 16년)에 함길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세종(世宗)의 북방정책에 따라 9년을 재임하면서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육진(六鎭)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함에 절대적인 공을 세우셨다. 또한 1449년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고려사(高麗史)를 개찬하고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편찬하시었다. 1453년(端宗 원년)에 좌의정(左議政)으로 승계(昇陞)되어 어린 단종(端宗)을 보필하다가 수양대군(首陽大君) 일

파에 피화되었으며 그로부터 293년 후인 1746년(英祖 22년)에 복관(復官)되어 충익(忠翼)이라 시호(諡號)되었다.

우리 순김(順金)의 안동(安東)친목회와 부녀회원 30여명은 지난 8월 29일, 절재공(節齋公) 묘소를 참배하기 위하여 충남 공주로 향하는 차 중에서 그 동안 상면(相面)치 못 하였던 종친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정담(情談)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때는 가을이라 들판의 오곡이 황금 빛을 띄우고 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수확의 계절이니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자연의 풍경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구미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들어서니 힘차게 뻗어있는 이 길은 나라의 대동맥으로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잘 정리된 시가지와 높이 솟은 공장의 굴뚝은 오늘의 풍요로움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으리라는 상념에 젖어 보기도 하였다.

11시경에 공주(公州)에 도착하였다. "김종서장군 묘소입구(金宗瑞將軍 墓所入口)"라는 이정표를 보았을 때 우리 순천김문(順天金門)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영원히 청사(靑史)에 빛날 자랑스러운 선조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기원(基

元) 유사의 친절한 안내로 충남도 지방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절재공조(節齋公祖) 묘소를 참배하고 함께 피화된 참의공(參議公) 휘(諱) 승규(承珪)의 정려각(旌閭閣)을 둘러보았다.

유충(幼冲)한 단종(端宗)을 보필하여 기울어져 가는 사직(社稷)을 지키다가 불의의 피화를 당한 절재공조(節齋公祖)의 만고천추(萬古千秋)의 충절과 철퇴를 맞고 쓰러진 아버지를 업고코자 몸을 던져 목숨을 바친 아들의 빛나는 효심(孝心)을 함께 느껴보는 자리인지라 추연(惘然)한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북방에서 야인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할 때 지은 호기가(豪旗歌)와 북진가사(北鎭歌詞)가 재실에 전시되어 있어 장부의 뛰어난 기개를 느끼게 하며, 최근 재실 입구에 수립한 공적비(功績碑)는 어린 금상(今上)을 보위코자 진력하였던 단심(丹心)이 오로지 왕위찬탈에만 혈안이 되었던 왕숙 수양(首陽)과 한명회(韓明澮) 일당의 계략에 의해 오히려 역모(逆謀)의 누명을 쓴 엄청난 비극을 되새겨 보고,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킨 아픔을 오늘에 대비하여 보았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은 오늘날 전국민이 성웅으로 크게 기리고 있음에 비하여, 야인 여진족을 물리쳐 육진(六鎭)을 개척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오늘의 국경을 확정하여 천추만대 세세토록 만천하에 길이 빛날 위업을 이루신 할아버지의 행적이 크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연유하였음이리라. 머지 않은 장래에 조국이 통일되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이라는 현실감이 피부에 와 닿을 때, 우리의 선조 절재공(節齋公)께서 이룩하신 큰 업적은 충무공 못지않게 재평가 받게 될 것은 물론 이곳 절재공의 유택(幽宅)도 반드시 성역화 되리라.

귀로(歸路)에 올랐다. 계유피화당시에 수난을 당하신 여러 원혼의 위패를 모신 유성 동학사(東鶴寺)에 들리어 잠시나마 피로를 풀면서 속세(俗世)를 떠난 심산유곡, 지금은 행락객이 소란스레 드나드는 골짜기의 자비로우신 부처님 앞에서 잠시 명상에 젖어 본다. 우리 김문(金門)의 훌륭한 여러 선조 가운데서도 역사속에 가장 빛나게 자리하고 계신 절재공의 뜻을 깊이 새겨 후세에 길이 전함은 물론 보다 많은 자손들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업적에 누(累)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발걸음을 되돌렸다.

己卯 8월 29일 安東 正杰 씀

文載 宗親 500萬원 快擲

大同譜 發刊 協贊基金으로



金文載 副會長

98년도 제9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동보 발간사업의 준비작업을 위하여 중앙종친회의 문재(文載) 부회장(寧州公 19대손)이 거금 500만원을 흔쾌히 기탁하여 많은 종친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철원공(鐵原公) 17대손 영창(永昌)이사가 30만원, 상의원정공(尙衣院正公) 15대손 명재(明在)종친께서 5만원을 각각 기탁하여 대동보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전보(前譜)의 자구수정 및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동보 발간 협찬 기금

文載 부회장 5,000,000	永昌이사 300,000
明在 종 친 50,000	합 계 5,350,000

原稿 寄稿 要望

順天金氏 宗親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宗親 여러분께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績과 思想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에 관한 內容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參考할만한 글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위와 같은 내용의 原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宗親會 動靜

宗식(鍾植) 회장 성석동(城石洞) 방문

12월 8일(水) 중앙종친회 鍾植회장은 목사공(牧使公) 휘(諱) 수염조(粹廉祖)의 후손이 세거(世居)하고 있는 고양시 성석동을 방문하였다. 호연(浩淵) 목사공과 종회장의 안내로 정주(定州)목사를 역임하고 증손 북저공(北渚公)의 귀(貴)로 병판(兵判)에 증직(贈職)된 諱 粹廉祖와 성현찰방(省峴察訪)을 역임하고 역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된 신계공(愼齋公) 諱 훈(堧)조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愼齋公의 次子인 장의공(壯毅公) 諱 여물조(汝物祖)와 손자인 북저공(北渚公) 諱 류조께서는 임병양란시(壬丙兩亂時) 양대(兩代)에 걸쳐 입공(立功)한 명가(名家)로서 크게 이름을 떨치었으니 이번의 참배는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宗睦會(宗睦會) 월례회(月例會) 개최

11월 19일(金) 오후5시,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宗睦會의 月例會를 개최하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金門의 각과 중진종친들의 모임인 宗睦會는 중앙종친회의 창립과 그 연륜을 같이 하면서 대소의 종사(宗事)를 수행함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고 현재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용운(溶運)회장을 비롯하여 15~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회의는 앞으로도 계획되고 있는 여러 위선사(爲先事)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추진하자고 협의하였다.

전간사장(前幹事長) 호연(浩淵) 퇴임(退任)

1997년 5월 이후 중앙종친회 간사장으로 2년여를 재직하였던 浩淵 종친이 금년 8월 말일자로 간사장직을 사임하면서, 그 동안 종친 제위의 과분한 협조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다.

중앙종친회도 그 동안 중무 수행에 많은 노력을 한 浩淵 전간사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후임 간사장에는 안동(安東) 출신의 오연(五淵) 종친이 취임하였음을 함께 알려드린다.

화 축 (華 燭)

■ 울산(蔚山)에 거주하는 태석(泰錫, 判事公 16代孫)종친의 장남 대경군은 11월 14일 울산예식장에서 박운교씨의 장녀 순옥양과 화축(華燭)을 올렸다.

■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 운영위원(運營委員)인 정수(井洙)종친의 장남 도균군이 11월 28일 금곡(金谷)의 목화예식장에서 이용무씨의 장녀 은숙양을 맞아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는데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 화환(花環)을 보내어 축하(祝賀)하였다.

■ 안산(安山)에 거주하는 동석(東錫, 判事公, 17代孫)종친의 삼남 대환군은 12월 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홍왕표씨의 장녀 성희양과 화축(華燭)을 올렸다.

부 고 (賻 告)

■ 1999(己卯)년 11월 5일 금요일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 고문(顧問)이신 일북(一北) 복산(福山)종친께서 79세를 일기(一期)로 영면(永眠)하시었다.

천안(天安) 안장(安葬)하였고 유족(遺族)으로는 일남(一男, 鍾元) 四女가 있다. 삼가 명복(冥福)을 빕니다.

기 증 (寄 贈)

■ 부산(釜山)에서 동원상사(東元商社 051-861-8253)를 경영하고 있는 성복(成福)종친은 참사자(參祀者)의 접대(接待)를 위하여 동원재(同源齋)에 식기(食器) 200개(個)를 회사(喜捨)하여 많은 종친들로부터 칭송(稱頌)을 받고 있다.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광재종친 100PPM 해외인증 제1호 공장탄생

- 순토종 품질혁신운동 국제화의 첫걸음 내디뎌 -



金光在 운영위원

신기술에 의한 작업방식, 설비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광일전자의 무궁한 발전과 광재(光在)종친의 건승함을 우리 문중 모두가 기원하는 바이다.



안성(安城)출신의 중앙종친회 운영위원 광재(光在)종친(尙衣院正公 14대손)이 전자업계 투신한지 30여년에 성공적인 기술개발인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호 뉴스레터에 소개되었다.

광재(光在)종친이 경영하는 광일공업(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소재)은 삼성전관(주)의 협력업체로서 중국 심천에 있는 현지법인 선광전자가 지난 10월 8일 100PPM 품질인정 현판식을 거행함으로써 해외인정 제1호 공장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96년도에는 제2회 전국품질 혁신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팔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부분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것에 반해 동사(同社)는 국내보다 우수한 작업환경에서

알리는 말씀

현재 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종친(宗親)들의 현주소(現住所)가 많이 누락(漏落)되고 변경(變更)되어 종보(宗報)의 발송등 일반 종중사(宗中事)의 연락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종친(宗親)들의 주소록(住所錄)을 재정비(再整備)코저 하오니, 이미 연락을 드린바와 같이 각지역 종친회(各地域宗親會), 파종회(派宗會)의 임원(任員)과 여러 종친들께서는 그 동안 사정이 있어 연락이 두절(杜絶)되었던 종친, 처음부터 명단(名單)에서 누락(漏落)되었던 종친과 특히 성년(成年)이 되어 분가(分家)하고 새로이 일가(一家)를 창립(創立)한 종친들에게 빠짐없이 연락을 하시어 종친회에 등록(登錄)을 하고, 다함께 힘을 합쳐 종사(宗事)를 도모(圖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탓으로 이름은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여 주시되 주소(住所)와 전화번호를 함께 통보하여 주시고, 전화(02-400-2501~2)나 팩스(02-400-2505)로 연락을 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幹事長 五淵 아림

謹賀新年 2000년 庚辰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종친께 인사를 올립니다.

釜山宗親會

會長 金完貞
副會長 金仁燮

金成福
金樂熙
金茂淵
金祐永

總務

嶺南宗親會

會長 金嘉淵
外任員一同

橫城公派宗會

會長 金榮熙
外任員一同

節齋公派宗會

會長 金學元
副會長 金亨民

金在煥
金鍾元

總務

金亨敦

절재공(節齋公) 가훈(家訓) 제작보급 개시

친필로는 국내 유일...덕목과 도리의 가치 일깨워 절재공 위상 정립 사업 일환, 실비 2만원에 보급

중앙종친회는 '절재공의 가훈을 순천김문의 가훈으로 정하자'는 취지아래 이 가훈을 인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절재공이 남긴 이 가훈은 친필로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몽유도원도 시첩외에 국내에 있는 유일한 역사적 가치가 소중한 유품으로 서울대 도서관에 그 진본이 소장돼 있다.

절재공이 만년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고인의 인품(人品)과 정신은 물론 후대를 생각하신 자애로운 심성이 묻어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만대에 걸쳐 명심하고 지켜야 할 덕목(德目)과 도리(道理)로 학계로부터 그 가치와 소중함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절재공 위상정립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이번 가훈제정을 전국 모든 종친으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훈제작에 들어가 개당 실제제작비(2만원)만 받고 보급하고 있다.

人皆愛珠玉錢
望子及賢至
樂於讀書至
於儉勤是汝家
法節齋金宗瑞

사람자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재물이 자라지
않고
바라보는 자는 재물이 있어서 자
랑
보람이 없는 것은 재물이 있어
서
이런데도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없
고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없
는
것
은
재
물
의
가
치
가
없
은
것
이
라

임원 년회비 수납안내

중앙종친회는 임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년회비와 세대당 년회비, 그리고 篤志 宗親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期마다 거르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신 회원님과 篤志宗親의 찬조금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11기(2000.1.1~12.31)에 납구하셔야 할 임원 년회비는 제9기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기가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액		
회장	년	200만원 이상
부회장	년	50만원 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 이상
고문·명예회장	년	10만원 이상
감사·간사·이사	년	10만원
세대당년회비	년	2만원

온라인 구좌

농협	069-01-212885
한빛은행	146-003175-02-501
우체국	012351-0134884
지로번호	7637405

* 위의 온라인구좌 또는 지로로 납부하신 후 그 내용을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幹事長〉

주식회사 필프리지

사장님을 모십니다!!

주식회사 필프리자는 여행사업, 유통사업, 레저사업, 무역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에서 특별히 종친여러분께 한하여 유통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장님 몇분을 초대합니다.

무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며 기존의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이 가능하고 고소득이 보장됩니다.

관심과 열의가 있으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02-403-8991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화물운송업 단계적 규제 완화 절실”



• 會長 金相容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南隱公 16代孫

약력

- 김상용(65세) 전남 해남 출생
- 전주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최고경영과정 수료
- (주)한서택배 (주)제주특송,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이사 회장
- 전북화물자동차 사업조합 이사
-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위원(현)
- 새천년 민주신당준비위원(현)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한서택배제주특송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97-13 전화 : (0652)211-1271~2 (02)571-5588 (HP)011-355-41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화물트럭터미널내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第十次定期總會協贊內容(1999. 10. 31.)

金鍾植	2,000,000원
金喆熙	1,000,000원
金光在	500,000원
金相容	300,000원
金政壹	200,000원
金浚永	100,000원
金溶運	100,000원
金行燁	100,000원
金永淵	100,000원
金相轍	100,000원
金東胡	100,000원
金雄烈	100,000원
金安千	100,000원
金東守	100,000원
金東洙	50,000원
金東吾	50,000원
金哲熙	50,000원
金景南	50,000원
金槿熙	50,000원
金明在	50,000원
金亨敦	50,000원
金東哲	50,000원
金都淵	50,000원
金錫淵	50,000원
金龜淵	50,000원
金鍾殷	50,000원
金明洙	50,000원
金炳緝	50,000원
金俊一	50,000원
金光龍	30,000원
金東哲	30,000원
金永昌	30,000원
金태희(南楊州)	30,000원
金南錫	30,000원
金大洪	30,000원
金龍錫	30,000원
金泰淵	30,000원
金東賢	30,000원
金秀孝	30,000원
金允一	30,000원
金曾淵	30,000원
金炳鎰	30,000원
金廉燮	30,000원
金英翼	30,000원
金奉斌	30,000원
金商應	30,000원
金湜淵	20,000원
金秉均	20,000원
金尙烈	20,000원
金銘桓	20,000원
宗睦會	300,000원
橫城公派宗會	200,000원
開慶宗親會	100,000원
釜山宗親會	100,000원
嶺南宗親會	100,000원
天安·牙山宗親會	50,000원
57名	7,190,000원

任員會費納付明細

金載俊(副會長)	500,000원
金完貞(副會長)	500,000원
金榮熙(副會長)	100,000원
金景南(監事)	100,000원
金東洙(運營委員)	200,000원
金圭淵(理事)	100,000원
金東暎(理事)	100,000원
金志燮(理事)	100,000원
金東俊(理事)	100,000원
金光熙(理事)	100,000원
金柄軫(理事)	100,000원
金佶弘(理事)	100,000원
김병화(理事)	100,000원
김동철(理事)	100,000원
金圭章(代議員)	50,000원
金世淵(代議員)	50,000원
金泰淵(代議員)	50,000원
김석남(代議員)	50,000원
합계	2,500,000원

中央宗親會를 찾아주신 분

月	日	名(職責)	住 所
10.	12.	喆熙 서울宗親會長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志塚 宗親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	15.	東燠 代議員	대구시 중구 동인동
10.	24.	大洪 宗親	서울 중랑구 면목동
		景南 監事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		相默 代議員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相敏 宗親	서울 마포구 아현 1동
		溶運 理事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동
		行燁 顧問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1.	浚永 顧問	대전 중구 태평2동
		榮培 運營委員	서울 마포구 서교동
11.	2.	相容 副會長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	9.	炳鎰 前幹事長	서울 강남구 대치동
11.	15.	銘桓 理事	서울 노원구 상계9동
11.	18.	英翼 宗親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	19.	宗睦會 溶運會長 外 15人 一同	
11.	22.	亨民 運營委員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23.	井洙 運營委員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11.	26.	台熙 宗親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1.	29.	明在 宗親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2.	1.	龜淵 宗親	서울 종로구 필운동

새 천년을 맞이하여

健康과 幸運을 빕니다

烏嶺産業株式會社

社長 昭俺 金 喆 熙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56-8
電話 : (02)572-5059, 573-5968
自宅 : 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 ㉠ 77-803
電話 : (02)543-5439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忍百堂 14代孫
- 서울宗親會長

清溪電業株式會社

動資部承認 第一種電氣工事業193號

代表理事 金 文 載



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7(清溪빌딩)
本社電話 : 265-6558, 275-0732~3
工場電話 : 877-6227
自宅電話 : 877-6244

- 中央宗親會 副會長
- 典書公派 寧州公 19代孫

광일공업(주)

三星電管(株)의 100ppm해의인증 제1호공장

代表理事 金 光 在



경기도 화성군 대안읍 능리 34-3
전화 : (0331)234-3171~2
FAX : (0331)235-4518

-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 襄景公派 參判公 14代孫

(株)東南特殊運輸

代表理事 金 東 洙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 (0661)755-0124~5
FAX : (0661)755-0188
자택 : (0661)752-8441
호출 : 012-610-8913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 襄景公派 監察公 17代孫

대문목재(주)

각종 목재 제조업

代表理事 金 都 淵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567
전화 : (032)577-7733

-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대성상사

(427호)

社長 金 深 淵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
職場 : 744-4890, 766-3648
自宅 : 766-5233

- 中央宗親會 監事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金料元神經外科醫院

院長 醫學博士 金料元



病院：光州廣域市 東區 錦南路5街 101
電話：(062)228-2471
自宅：(062)223-7200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進士公 15代孫
- 全南光州地域 宗親會長
- 光州廣域市 醫師會名譽會長
- 光州全南 佛教信徒會長
- 光州博物館會 會長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金喆俊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登浦洞4街 153-1
電話：678-8225, 678-0848

- 中央宗親會 副會長
- 持平公派 宗會 會長
-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 法務部更生保護會 名譽會長

(株)高麗바이오스톤

맥향토(건축자재), 녹조 및 적조 수질정화재,
토양정화재

代表理事 金大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電話 事務所：(0581)571-6887
자택：(0581)571-5500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翊贊公 16代孫
- 聞慶市議會議長
- 聞慶宗親會 會長

合同技工社

〈전문공사업〉

대표 金東湖



사무실：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5-6
전화：(02)409-7723
FAX：(02)409-7726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谿谷公 13代孫

稅務士 金東吾



事務所：聞慶市 店村洞 244-8
電話：事務所 (0581)555-4887~8,
(0581)555-2740
自宅 (0581)555-4031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7代孫
- 聞慶宗親會 會長 歷任

稅務士 金沅杰



사무실：안동시 운풍동 116-29
사무실：(0571)856-1773
자택：(0571)822-4197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8代孫
- 영남종친회 이사
- 博約會 안동지회장

내외합동법률사무소

辯護士 金亨民



事務所：瑞草區 瑞草洞 1678-2
동아빌라트 2동 403호
電話：(02)3477-0654~6
FAX：(02)3472-4561

-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 순금회 總務會務委員
- 節齋公 18代孫
- 辯護士

(주)근하공영 (주)흥인운수

代表 金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02)972-2331

-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 襄景公派 橫城公 15代孫

빙그레가 식품의 역사를 바꿔갑니다



건강을 위해 한번 더, 맛을 위해 하나 더
고객의 만족과 최고의 제품을 위해
빙그레가 앞서갑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한발 앞선 제품을 선보여온 빙그레의 연구개발 정신입니다

빙그레의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제품은 더 좋은 제품에 대한 도전정신과 연구개발의 열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목장에서 직접 집유한 생우유를 사용해 만든 아이스크림 투게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캡슐 요구르트 닥터캡슐, 새로운 차원의 가공우유 바나나맛 우유, 100% 콩기름 라면 매운콩라면 등, 고객이 원하는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빙그레의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식품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새천년에 도전하자!

뉴 밀레니엄 사이버 드림!



2000

총상금 4억 뉴 밀레니엄 사이버 대축제 - 한화증권에서 새천년을 사냥하십시오.

koreastock.co.kr

새천년 기념 제3회 한화증권 사이버 수익률 게임 대회

세번째, 뉴 밀레니엄 사이버 스타는 누구인가? 1회 우승자 최진식(수익률 2,850%), 2회 우승자 박정훈(수익률 2,057%)을 발굴한 사이버 수익률 게임의 원조! 한화증권이 뉴 밀레니엄을 기념하여 더욱 진보된 수익률게임 대회를 개최합니다. 소액투자자와 고액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금액별 그룹 구분과 건전한 운용, 한화증권 홈페이지를 통한 게임상황 인터넷 중계-투명한 게임의 법칙이 준비된 한화증권에서 뉴 밀레니엄 사이버 스타로 떠오르십시오.

- 접수기간 : 1999. 12. 22 ~ 2000. 1. 31
- 운용기간 : 2000. 1. 4 ~ 2000. 3. 31 까지
- 참가대상 : 1) 기존 HTS 이용자 및 신규 HTS 가입자
2) 위탁계좌, 선물/옵션 계좌, 증권저축계좌 모두 가능
- 참가자격 : 1) 주식-예탁자산 300만원 이상(신청일 마감 기준)
2) 선물/옵션-예탁자산 3천만원 이상
- 참가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 (해당지점/콜센터 3772-7777)로 신청
신규고객의 경우 계좌 개설후 신청
- 최초 예탁자산에 따른 투자그룹 구분
최초 참가 등록시 투자그룹이 결정되며 차후 투자그룹 변경은 불가

구분	금액	비고
A 그룹	3천만원 이상	선물/옵션계좌는 일괄적으로
B 그룹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A 그룹에 포함
C 그룹	3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운영원칙
 - 일반원칙
 - 1) 1인 1계좌만 유효 (단 선물/옵션 1개 계좌 추가 가능)
 - 2) 동등이 선물/옵션 거래자일 경우 2등은 위탁계좌에서 선발
 - 3) 기초자산 (현금, 주식)은 1월 4일 이전 신청인 경우 12월 30일 종가로 평가하며 1월 4일 이후 신청인 경우 신청일 당일 종가로 평가
 - 4) 게임기간중 최소약정 금액은 순 입금액의 5배(5회전)
 - 5) 게임기간중 입출금 가능하며, 출금은 평잔에 미반영
- 게임 등록후 그룹변경 불가
- 입금으로 인해 평잔이 타 그룹 기준으로 변화더라도 그룹 변경은 안됨
- 출금으로 인해 실질자산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시상에서 제외
 - 6) 차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보유중인 채권을 매각하여 주식을 사는 경우 매각 시점의 금액을 입금으로 처리)

- 매매종목에 대한 원칙(주식계좌의 경우)
 - 1) 장내 주식 및 코스닥 주식 모두 매매가능하나 불공정 매매 방지 차원에서 상장 주식수 2십만주(액면가 5천원 기준) 이하인 종목은 수익률 산정에서 제외
 - 2) 신규 상장주식 입고분은 수익률 산정에서 제외(대도시 매도금액은 입금액으로 처리)

■ 시상품 : 각 그룹별 1명 (VAT별도)

구분	1등	2등	3등	새 Millenni(4명)
A 그룹	5천만원(MMF)	EF소나타(1.8)	대형TV(53인치)	노트북PC
B 그룹	5천만원(MMF)	EF소나타(1.8)	대형TV(53인치)	노트북PC
C 그룹	5천만원(MMF)	EF소나타(1.8)	대형TV(53인치)	노트북PC

■ 약정고 마일리지 보너스

• 기준: 참가 신청일로부터 게임 종료시까지의 총 약정금액

약정금액	보너스(원)
50억 이상~100억 미만	50만원
100억 이상~200억 미만	100만원
200억 이상~300억 미만	200만원
300억 이상	300만원

- 약정고 계산방법
 - 현 물 : 총약정×100%
 - 선 물 : 총약정×10%
 - 출 선 : 총약정×400%

이지-넷 콜센터
02) 3772-7777



www.koreastock.co.kr